

4장 글쓰기의 윤리

pp. 112-130



글쓰기 윤리의 문제

가. 표절의 문제

나. 자료 짜깁기의 문제

다. 자료 조작, 왜곡의 문제

라. 과제물 사고 팔기의 문제

가. 표절

- <사전적 정의> -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이용할 때 **정확한 인용 표시와 출처 표시가 없는 경우**
-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서술 방식을 달리한다든가 문장의 일부 단어를 첨삭하거나 동의어로 대체하는 경우**

나. 자료 짜깁기의 문제

- 여러 글을 갖다 붙여 짜깁기하여 자신의 글인 양 조작하는 행위
- 자료를 스스로 '조합'하여도 짜깁기는 표절에 속함
- 아무리 많은 자료를 애써 찾아 공들여 이어 붙여서, 최초의 자료와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하였더라도 인용 표시와 출처 표시가 반드시 필요함

나. 자료 짜깁기의 문제

자료

[1] 다매체 환경에서 소통의 특징은 문자와 이미지, 이성과 감성이 중층적으로 얹힌 복합적 소통으로,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터넷의 소통으로, 쌍방향적 소통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윤여탁·최미숙·김정자·정현선·송여주,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10쪽)

[2] 디지털넷은 쌍방향 소통이다. 구술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쌍방향 소통이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중략)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구술사회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특징들을 다시 나타나게 해주고 있다. 구술이 즉각적인 청자의 반응과 참여에 의해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인터넷에서도 접속한 자의 즉각적인 반응과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연기된 반응이나 점검도 가능하여 참여의 성격이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정덕, 살림지식총서, 21세기 한국의 문화혁명, 살림, 2004, 80쪽)



[짜깁기의 예]

현대와 같은 다매체 환경에서 소통의 특징은 문자와 이미지, 이성과 감성이 중층적으로 얹힌 복합적 소통으로,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터넷의 소통으로, 쌍방향적 소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구술사회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특징들을 다시 나타나게 해주고 있는데, 구술이 즉각적인 청자의 반응과 참여에 의해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인터넷에서도 접속한 자의 즉각적인 반응과 참여가 가능해졌다.

다. 자료 조작, 왜곡의 문제

- 실험 보고서, 조사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실험 과정이나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논문취소는 연구 실수 탓?...67%가 표절·조작 때문

미 예시바대 연구팀 조사 결과 독일 루트비히스하펜 병원은 지난 8월 마취과장으로 재직하던 요아힘 볼트 전 기센대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및 논문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볼트 박사는 무혈 수술용 합성전분 연구 전문가로 <진통과 마취> 등 16개 저널에 제출한 논문 102개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90여 개 논문이 이미 각종 데이터 조작 등의 이유로 취소됐으며, 병원 측은 볼트를 형사고발했다. (중략)

연구팀은 학술지나 저널이 논문을 취소한 사례에 대해 연구윤리국(ORI) 보고서, 신문 기사, '리트랙션 워치'(논문 취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 등 2차 자료를 토대로 취소 사유를 재평가한 결과 158건의 사유가 재조정됐다. 특히 단순 실수가 조작으로 바뀐 경우는 742건 중 16%인 118건에 이르렀다. 그 결과 취소 사유로 조작이 43.4%로 가장 많았고, 중복 출판이 14.2%, 표절이 9.8%였다. 부정행위에 의한 논문 취소가 67.4%로, 단순 실수 21.3%의 세배를 넘었다. (후략)

한겨레, 이근영 선임기자(2012.10.8)

연구자 연구 윤리 지침

1. 부적절한 출처 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 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7. 연구 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할 연구 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8.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9.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10.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 설계를 포함한 연구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부적절한 출처의 인용

- 인용: 자신의 고유한 문장이 아니라면 반드시 출처를 달아야 한다.
- 끌어쓰기: 다른 사람의 글을 학생 자신의 글로 끌어 쓰거나 요약하는 경우도 그 사실이 주석이나 본문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아이디어와 사실: 다들 곳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나 사실은 무엇이든지 주석이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각주와 참고문헌: 참고한 모든 문헌은, 인용한 출처만 포함시키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모두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주나 미주로 인용된 글이나 정보 바로 다음에 명시해야 한다.

부적절한 출처의 인용

- 전자 출처: 인터넷, CD, 전자 메일 등의 형태로 수집한 자료들도 **모두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실험실 작업,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과제: 실험실 작업이나 컴퓨터 수업에서 공동 작업으로 레포트를 제출할 때 **공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수행한 것을 수정한 경우,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구두 레포트: 구두로 리포팅할 때도 위 규정에 따라 **출처를 밝힌다.**
- 학술적 행위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의: **표절, 허락 없이 레포트를 반복 제출하는 행위, 잘못된 인용,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작업이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규정을 몰랐다가거나 위반 당시 어떤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답변은 수행될 수 없다.**



인용, 주석, 참고문헌 작성법

본문주/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방식: 글에 인용 표시는 2번

1. 각주/본문주

2. 참고 문헌



본문에 **각주** 또는 **본문주**로 제시한 내용을 다 모아
서 글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으로 제시

- 단행본 - 국문, 영문
- 간행물(소논문) - 국문, 영문

:

각주(脚註, footnote) 제시 방법

→ 쪽 하단에 출처(구체적인 서지사항)를 밝힘

- 독자가 참고하기 쉬워 주로 사용됨

호출어는 호칭어, 지칭어 등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표현으로, 청자 대우법과 같은 문법적 특성이 작용하기도 하고 공손성 실현의 측면에서 화자의 담화 전략도 드러난다. 호출어 및 호칭어 등의 국어 부름말은 국어 예절을 담은 화법과 관련된 표현이어서 국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부름말의 유형이나 용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⁵⁾ 그런데 이와 관련된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호칭어 중심으로 연구가 전개되었고, 호출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호출어 ‘이+보-’류를 대상으로 하여 ‘이+보-’류의 발달 과정과 발화 목적 및 상황의 측면에서 사용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2. 연구 자료

‘이+보-’류의 발달 과정과 사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어 자료는 고려대 구어 말

5) 황병순, 「국어 부름말의 유형 연구」, 『어문학』 제137호, 한국어문학회, 2017, 227면 참조.

본문주(本文註, parenthetical reference) 제시 방법

→ 저자·발행 연도 표시법:

- 본문에 간단하게 참고 문헌의 **필자, 연도, 쪽수**를 밝히고,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참고 문헌 목록에서 제시함

양영하·전정미(2016: 50~51)에서는 ‘그래’에 후속 발화가 이어지는 양상에 대하여, 정보 변화 없이 선행 발화의 정보 내용이 후행 발화에서 계속 유지되는 ‘정보 유지 유형’, 이전 정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거나 정보가 발전되는 ‘정보 확대 유형’, 선행 발화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보 부인 유형’, 선행 발화와 화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정보 전환 유형’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화자가 ‘그래’를 진행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자신이 진행할 발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를 발화 초 위치에 실현한 뒤에 후속 발화를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는 구어 담화에서 담화 요소들의 의미적 결속을 드러내고 화·청자 간의 상호작용적 의미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표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에 관한 선행 연구들도 ‘그래’가 하나의 담화표지라는 것을 토대로 ‘그래’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였다(양영하·전정미, 2016:40).

저자명 표기 규칙(각주/본문주 공통)

- 저자가 1~3명인 경우 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모든 저자**를 표기
 - ① 국문 - 저자가 2~3명일 때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하여 제시
 - ② 영문 - 저자 2명은 '저자명 and(&) 저자명', 저자 3명은 '저자명, 저자명 and(&) 저자명'으로 표기
- 저자가 **4명 이상**인 경우 제1 저자 이름만 제시하고 '**외**'(국문), '**et al.**'(영문)을 붙여서 제시

예) 국문:

영문:

가. 각주 인용 방식: (1) 단행본

1. 저자명
2. 저서명
3. 출판지: 출판사
4. 간행연도
5. 인용면

*전자 책은 마지막에 URL 추가.

가. 각주 인용 방식: (1) 단행본

◈ 연습1(국문)

우리 책 260-261쪽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사고와 표현

260-261쪽 인용

2014년 2월 27일 초판 1쇄 펴냄

2018년 2월 28일 초판 5쇄 펴냄

지은이 최미숙·박재현·이승희·최홍원·전영옥

펴낸이 윤철호

펴낸곳 (주)사회평론아카데미

편집 고하영·정세민

마케팅 이승필·강상희

등록번호 2013-000247(2013년 8월 23일)

전화 02-2191-1128

팩스 02-326-1626

주소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17

ISBN 979-11-88108-52-7 93700

© 최미숙·박재현·이승희·최홍원·전영옥, 2014

가. 각주 인용 방식: (1) 단행본

◈ 연습2(영문)

- ‘Peter B. Denes’와 ‘Elliot N. Pinson’가 공저한 ‘The Speech Chain’이라는 책을 참고하였다. 이 책의 부제목은 ‘the Physics and Biology of Spoken Language’이고, 출판사는 ‘W. H. Freeman and Company’이며, 발행지는 ‘New York’이다. 출판연도는 1993년이며, 인용한 페이지는 3~7쪽이다.

가. 각주 인용 방식: (2) 학술지 논문

1. 저자명
2. 논문명
3. 학술지명
4. 권호 정보
5. (발행처명, 학회명)
6. 간행 연도
7. 인용, 참고한 면

가. 각주 인용 방식: (2) 학술지 논문

◈ 연습3(국문)

‘강옥희’가 1996년에 민족문화사연구소의 민족문화사연구라는 학술지 9권1호에 실은 ‘올바른 여성문화사 정립을 위한 초석 마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인용면은 415쪽이다.

가. 각주 인용 방식: (2) 학술지 논문

◈ 연습4(영문)

Taehong Cho and Peter Ladefoged가 쓴 Variation and universals in VOT: evidence from 18 languages라는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논문은 Journal of Phonetics 27호에 실렸는데, 해당 논문은 이 논문집의 207~229쪽에 있고, 내가 참고한 페이지는 220쪽이다. 출간일 정보는 Received 2nd December 1998, and accepted 26th July 1999이다.

가. 각주 인용 방식: (3) 학위 논문

저자명, 논문명, 대학명 학위명, 간행 연도, 인용 면.

◇ 연습5(국문)

이경하가 2004년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작성한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박사학위논문을 105-106쪽 인용하였다.

가. 각주 인용 방식: (4) 신문

저자명, 기사명, 신문사, 발행 일자, 인용 면.

*전자 신문의 경우 마지막에 URL 추가.

◈ 연습6(국문)

남형두 기자가 2013년 2월25일에 '표절에 관대한 문화'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 3쪽에 실은 글을 인용하였다.

가. 각주 인용 방식: (5) 웹사이트

저자명, 글 제목, 웹 사이트명, 게시 일자. URL

*게시 일자(최종 수정 일자)가 없는 경우 URL 뒤에
검색 일자 제시

◈ 연습7(국문)

이현우가 알라딘 블로그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2013년 11월 24일에 작성한 글을 인용하였다. 이 글의 URL은 <<https://blog.aladin.co.kr/mramor/6710535>>이다.

가. 각주 인용 방식: (6) 번역서

원 저자의 원어명, 번역 저서명, 번역자명, 출판지: 출판사, 번역서의 간행 연도, 인용 면.

가. 각주 인용 방식: (7) 인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

- 바로 위에서 인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한 경우: 위의 글, 인용 면.
- 앞에서 인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한 경우: 앞의 글, 인용 면.

가. 각주 인용 방식: (8)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 1) 직접 인용: 다른 사람의 글을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는 방법으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문단을 만들어 인용한 내용을 들여 써서 표시
- 2) 간접 인용: 다른 사람의 글을 원문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자신의 글로 다시 기술하여 인용하는 방법

- 직접 인용-큰따옴표 사용 형식

예) 이경하는 여성문학사 서술이 남성 중심의 문학사를 극복하는 중간단계이며, “중간 단계로서의 ‘여성문학사’는 기존의 자국문학사에서 누락되고 평가절하 되었던 여성작가와 작품들을 가능한 많이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중략) 이 단계의 중요한 임무이다.”¹⁾라고 진단하였다.

¹⁾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97쪽.

가. 각주 인용 방식: (8)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 직접 인용-새로운 문단 작성 형식

예) 이경하는 여성문학사 서술이 남성 중심의 문학사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목표와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중간 단계로서의 ‘여성문학사’는 기존의 자국 문학사에서 누락되고 평가절하되었던 여성 작가와 작품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중략) 이 단계의 중요한 임무이다.¹⁾

¹⁾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97쪽.

- 간접 인용

예) 현재와 같은 다매체 환경에서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특히 인터넷이 지닌 쌍방향성에 주목한 논의들이 많은데, 이정덕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¹⁾

¹⁾ 이정덕, 21세기 한국의 문화혁명, 서울: 살림, 2004, 80쪽.

가. 각주 인용 방식: (9) 재인용

- 인용한 글의 내용을 다시 인용할 때 주석에 **원출처**와 **재인용했다는 사실**을 모두 제시
- 참고 문헌에는 본인이 참고한 재인용 출처의 서지 정보만 제시

예) 한경 경제용어사전, 블록딜,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09. 11. 23. <<http://dic.hankyung.com>>,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딜, 2016. 5. 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5984&cid=40942&categoryId=32972>>에서 재인용.

가. 각주의 참고문헌 제시 방식

◇ 문헌 종류에 따른 참고 문헌 작성 방법

- 영문의 경우 저자명은 '성, 이름'으로 표시,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1 저자만 '성, 이름'으로 제시
- 단행본, 학위 논문, 신문 자료의 참고 문헌은 인용 면을 제시하지 않음
- 학술지 논문은 인용 면 대신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전체 페이지 수를 제시

◇ 참고 문헌 제시 순서

- 국내 문헌, 국외 문헌을 나누어 종류별, 유형별 제시: ① 국내 문헌, ② 동양권 문헌, ③ 서양권 문헌
① 단행본, 논문류, ② 인터넷 자료 부류
- 국내 문헌은 저자 이름을 가나다 순, 동양권 문헌은 저자 이름을 한문의 가나다 순, 서양권 문헌은 저자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
- 동일한 저자의 논저를 여럿 참고한 경우, 간행 연도 순서에 따라 제시하되 같은 해에 발표된 논저는 그 선후 관계를 따져 ㄱ, ㄴ 또는 a, b로 제시

가. 각주의 참고문헌 제시 방식

강옥희, 올바른 여성문학사 정립을 위한 초석 마련, 민족문학사연구 9권 1호, 1996, 414-420쪽.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ㄱ.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11, 2004 ㄴ, 391-412쪽.

최미숙 외, 사고와 표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Cho, Taehong and Peter Ladefoged, Variation and universals in VOT: evidence from 18 languages, *Journal of Phonetics* 27, 1999, 210-232.

Denes, Peter B. and Elliot N. Pinson, *The Speech Chain: the Physics and Biology of Spoken Language*,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993.

Ong, Walter J.,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 임명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남형두, 표절에 관대한 문화, 한겨레, 2013. 2. 25. <<http://www.hani.co.kr/art /opinion/column/575423.html>>

이현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이야기, 알라딘 블로그, 2013. 11. 24. <<https://blog.aladin. co.kr/mramor/6710535>>



본문주 인용 방식

나. 본문 주 인용 방식: 단행본,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신문

- 본문 내에 인용한 글의 '저자 이름', '간행 연도', '인용 면' 제시
- 영문의 경우 저자 이름은 '성'만 표시
 - 예1) Elliott(1987: 269)에서는
 - 예2) ~라고 하였다(Elliott, 1987: 269).
- 전자책은 단행본과 표기가 동일하지만, 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용 부분의 장과 절 등의 정보 제시

나. 본문 주 인용 방식: 웹사이트

1) 저자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연도

예1) 이현우(2013)에서는

예2) ~라고 하였다(이현우, 2013).

2) 저자명 대신 아이디가 있는 경우: 아이디, 연도

예1) pingpong(2020)에서는

예2) ~라고 하였다(pingpong, 2020).

3) 저자명, 아이디가 없는 경우: 사이트명/홈페이지명, 연도

예1) 알라딘 블로그(2013)에서는

예2) ~라고 하였다(알라딘 블로그(2013)).

나. 본문주 인용 방식: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 직접 인용 - 큰따옴표 사용 형식

예) 이경하(2004: 397)에서는 “중간 단계로서의 ‘여성문학사’는 기존의 자국 문학사에서 누락되고 평가절하되었던 여성 작가와 작품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중략) 이 단계의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진단하였다.

- 직접 인용 - 새로운 문단 작성 형식

예) 이경하(2004: 397)에서는 남성 중심의 문학사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목표와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중간 단계로서의 ‘여성문학사’는 기존의 자국 문학사에서 누락되고 평가절하되었던 여성 작가와 작품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중략) 이 단계의 중요한 임무이다.

- 간접 인용

예) 이정덕(2004: 80)에서는 인터넷이 구술과 마찬가지로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인터넷의 경우는 접속한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었다.

나. 본문주 방식: 재인용 표시

- 재인용 표시

예1) 한국경제용어사전(2009, 네이버 지식백과, 2013에서 재인용)에서는

예2) ~라고 하였다(한국경제용어사전, 2009, 네이버 지식백과, 2013에서 재인용).

나. 본문주의 참고문헌 제시 방식

강옥희(1996), 올바른 여성문학사 정립을 위한 초석 마련, 민족문학사연구 9권 1호, 414-420쪽.

이경하(2004 ㄱ),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하(2004 ㄴ),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11, 391-412쪽.

최미숙 외(2018), 사고와 표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Cho, Taehong and Peter Ladefoged(1999), Variation and universals in VOT: evidence from 18 languages, *Journal of Phonetics* 27, 210-232.

Denes, Peter B. and Elliot N. Pinson(1993), *The Speech Chain: the Physics and Biology of Spoken Language*,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Ong, Walter J.(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 임명진 역, 서울: 문예출판사.

남형두(2013), 표절에 관대한 문화, 한겨레, 2013. 2. 25. <<http://www.hani.co.kr/art /opinion/column/575423.html>>

이현우(2013),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이야기, 알라딘 블로그, 2013. 11. 24. <<https://blog.aladin. co.kr/mramor/6710535>>